

남원의료원, 엔데믹 시대 진료 정상화

남원=양준천 기자 | 승인 2023.06.04 09:39



남원의료원 가족상담실 운영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2일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종료)으로 병원 진료 정상화를 위한 진료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1일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19병상을 운영한 뒤 지난 2022년 5월 2일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치료 시설은 모두 종료됐다.

이에 외래 진료 확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포함한 일반 입원 병상 운영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온 힘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남원의료원은 본관 2층 가족 만남실(면회실)을 마련해 입원환자 감염노출 최소화 및 쾌적한 병실환경을 제공하고 입원 환자를 위해 출입이 불가했던 야간 출입구fmf 전면 개방했다.

또 본관 후면 부지에 '남원시 2023년 녹색자금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목시계를 비롯 황톳길 조성, 휴게공간을 보강해 환자 및 내원객의 힐링 공간을 마련해 운영중에 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코로나 이후 병원 진료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양준천 기자

남원의료원, 엔데믹 시대 진료 정상화 최선

✎ 김동주 기자 | © 승인 2023.06.04 16:29



(사진/남원의료원)

(서울일보/김동주 기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에 맞춰 병원 진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2020년 2월 21일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19병상을 운영하고, 지난 2022년 5월 2일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치료 시설은 모두 운영이 종료되어 외래 진료 확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포함한 일반 입원 병상 운영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온 힘을 다했다.

한편 남원의료원은 본관 2층 가족 만남실(면회실)을 마련하여 입원환자 감염노출 최소화 및 쾌적한 병실 환경을 제공하였고, 입원 환자를 위해 출입이 불가했던 야간 출입구 전면 개방, 본관 후면 부지에 남원시 2023년 녹색자금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목식재, 황톳길 조성, 휴게공간을 보강하여 환자 및 내원객의 힐링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엔데믹 시대 진료정상화 최선

송정섭 기자 | 승인 2023.06.04 10:00



(사진=남원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에 마춰 병원진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2월21일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19병상을 운영했고, 지난 2022년 5월2일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치료 시설은 모두 운영이 종료 돼 외래 진료 확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포함한 일반 입원 병상 운영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온 힘을 다했다.

남원의료원은 본관 2층 가족 만남실(면회실)을 마련해 입원환자 감염노출 최소화 및 쾌적한 병실환경을 제공했고, 입원 환자를 위해 출입이 불가했던 야간 출입구 전면 개방했으며, 본관 후면 부지에 남원시 2023년 녹색자금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목식재, 황톳길 조성, 휴게공간을 보강해 환자 및 내원객의 힐링 공간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코로나 이후 병원 진료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정섭 기자 기자

인쇄

남원의료원, 엔데믹 시대 진료 정상화에 최선

✎ 김수현 기자 | © 승인 2023.06.04 14:30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코로나19 상황이 이달부터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일 밝혔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2020년 2월 21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그동안 219병상을 운영해왔다. 이후 2022년 5월 2일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치료시설은 모두 운영이 종료됐고, 지난 1년여간 외래진료 확대와 일반 입원 병상 운영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의료원 본관 2층에 가족 만남실(면회실)을 설치해 입원환자의 감염노출 최소화 및 쾌적한 병실환경을 구축했고, 출입이 불가했던 야간 출입구를 전면 개방했다. 또한 본관 후면 부지는 남원시의 '나눔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목 식재, 황톳길 조성, 휴게공간 조성 등 환자 및 내원객의 편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병원 진료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h5351@hanmail.net